

•우리교육 힘찬문고 우리나라 어린이 문학

4 모래알 고금 마해송 장편 동화

5 청어 뽀다귀 이주홍 동화집

6 여울각시 이중현 동화집

7 한울이 도깨비 이야기 김진경 장편 동화

8 하느님께 보내는 편지 송언 장편 동화

9 감동바가지 아줌마 권정생 동화집

10 수경이 임길택 동화집

11·12 동화로 읽는 삼국유사 1·2 일연 지음·손춘익 엮음

16 팔봉이의 굉장한 날 한국어린이문학협회의 엮음

17 엄마 신발 신고 뛰기 한국어린이문학협회의 엮음

23 싸우는 아이 손창설 소년소설

26 수일이와 수일이 김우경 장편 동화

27 순돌이 이야기 송영 장편 동화

30 아버지가 아날까 교육문예창작회 엮음

33 바이 바이 이경자 장편 동화

34 바보 온달 이현주 지음

37 은어의 강 김동영 장편 동화

38 받은 편지함 남찬숙 장편 동화

40 외할매 만세 박정희 지음

42 다름이의 남다른 여행 최유성 장편 동화

43 안녕히 계세요 남찬숙 장편 동화

49 엄마의 바다 김일광 장편 동화

50 나무 새 장경선 장편 동화

53 너나들이 마을 류성렬 장편 동화

54 살아난다면 살아난다 최은영 장편 동화

55 매 이창숙 장편 동화

57 나는 코끼리였다 이용포 지음

59 뿔망뿔망 왕국의 비밀 김미숙 지음

60 애투수 시대 류성렬 지음

62 그 해 여름의 복수 장주식 지음

63 오로라 원정대 최은영 지음

65 동래성에 부는 바람 박미경 지음

66 1968 밤섬 수비대 방민경 지음

67 강태풍 실종 사건 박채현 지음

68 힘찬문고

누룽지 이사 대작전



도시의 큰 건물이 재건축으로 헐리게 되면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던 동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연히 고양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병뚜껑을 발견한 지오는
그 자리에서 만난 노란 고양이에게 ‘누룽지’란 이름을 붙여 주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오가 사는 아파트가 헐리고, 재건축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엄마를 잃고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양이,
나비는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알려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고양이와 함께 이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살 곳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큰일입니다. 이사 가기로 한 전날 벌어진 소동 때문에
지오가 누룽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룽지와 고양이 친구들은 지오와 말이 통하지 않은 채로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살던 영역을 쉽게 바꾸지 않는 고양이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 온 고양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게 되면 그곳에 함께 지내던
동물과 식물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68 힘찬문고

누룽지 이사 대작전

신민경 지음 | 이은주 그림

우리교육

68



누룽지 이사 대작전

신민경 지음 | 이은주 그림

북 디자인 * 최혜원

•지은이 신민경

스물다섯 살에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을 만나 책을 읽어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이 놀았어요. 지금도 어린이책을 읽다가 울고 웃어요. 책을 들고 어린이들을 찾아가 읽어 주고 있어요. 책 읽어 주는 할머니, 동화 쓰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온 세상 어린이가 좋은 책을 읽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사를 위한 온작품 읽기》, 《100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에 글을 실었어요.

•그린이 이은주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어요. 그린 책으로는 《아이 돌보는 고양이, 고마워》, 《똥똥똥 똥깨비 똥 나와라 똥딱!》, 《거짓 소문을 밝혀라》, 《전설의 다람쥐》, 《한국사 재관 실록》, 《아이작 뉴턴, 운동의 법칙을 밝히다》, 《딱 한마디 한국사》, 《조선의 마지막을 함께한 고종》, 《좋은 약? 나쁜 약? 내게 맞는 약》 등이 있고, 지금은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꼬불꼬불 옛이야기 고개-동물〉을 연재하고 있어요. 언제나 아이들이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